

Where are you from? 지역 고정관념에 따른 언어 기대 편파(LEB) : 언어 범주화 모델(LCM)을 중심으로*

박상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혜숙⁺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Semin과 Fiedler(1988)가 제안한 언어 범주화 모델(LCM)을 기반으로 고정관념이 언어로써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단어들인 언어 범주화 모델에서 주장한 추상화 정도에 따른 4개 언어범주로 구분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한국어 단어는 5개 평가차원에 따라 추상화 정도가 다른 4개 언어 범주로 구분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의 고향과 행위를 스크립트로 제시하여 지역 고정관념에 따라 대상의 행위에 대한 추상화가 다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지역(즉, 충청) 고정관념과 불일치할 때보다 일치할 때 대상의 행위를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하여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3에서 취업 면접 상황의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여 대상의 고향을 말씨로 조작한 경우, 연구2에서와 동일한 형태의 언어적 추상화가 다시 한 번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또한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지역(즉, 서울) 고정관념과 불일치 할 때보다 일치할 때 더욱 내부적인 하였고 채용하겠다고 응답하여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지역고정관념에 따른 귀인과 채용의도를 언어적 추상화가 매개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매개모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실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언어 범주화 모델, 언어 기대 편파, 언어적 추상화, 지역 고정관념

과거 심리학에서 언어(language)는 주로 지각, 기억 및 사회적 추론과 같은 인간의 인지적 처리과정(cognitive process)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전통은 현대 심리학에 이르러 용어(term)의 분류를 시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Brown, 1983). 사실, 인간의 인지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 언어 연구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내적 처리 과정만을 강조하였다.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가 의사소통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

* 본 논문은 박상희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 교신저자 : 김혜숙,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 (031) 219-2770,

E-mail : hsk@ajou.ac.kr

간의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과 언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이어 여러 연구에서 상호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상호대인동사(interpersonal verbs)가 인간의 사회적 추론 과정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이다(Brown & Fish, 1983; Semin & Greensland, 1985). 보다 구체적으로 상호대인동사란, 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즉, 돕다, 때리다, 싫어하다 등)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언어로써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 인지적 추론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사회심리학에서 언어 연구는 개인의 내적 과정이 아닌 상호 대인적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되며 그 결과 사회적 행동이나 추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Semin과 Fiedler(1991)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때, 상호 대인 용어(interpersonal terms) 즉, 동사와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리하면, 상호대인 용어의 전략적 사용은 의사소통자의 궁극적인 의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언어가 바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념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특정 대상 집단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신념이 바로 고정관념(stereotype)이라면, 결국 언어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념 즉, 고정관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소문(rumor)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순한 사실이 여러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거치면서 다양한 신념이 반영되게 된다. 그 결과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혀 없는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언어 범주화 모델(LCM), 언어적 추상화(Language Abstraction)

고정관념과 언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은 언어적 추상화(language abstraction)이다. 즉,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 의사소통할 때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대상을 포괄적·추상적으로 지각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반면 의사소통 시 동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대상과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지각하며 상황자체에 초점을 맞추므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적 추상화(language abstraction) 현상은 용어(term)의 구분 즉,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을 통해 주로 연구되었다. 즉, Brown과 Fish(1983)의 경우 행위동사(action verb)와 상태 동사(state verb)를 구분하였고 Semin과 Greenslade(1985)는 동사를 직접적 용어(immediate terms)로, 형용사를 간접적 용어(mediate terms)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즉, 동사는 형용사와 비교하여 행위에 대한 묘사가 세부적이며 구체적이므로 직접적 용어(immediate terms)로 구분하였다. 반면 형용사의 경우 동사와 비교해서 행위에 대한 묘사가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의미 이상의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매개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 용어(mediate terms)로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Semin과 Fiedler(1988)는 Brown과 Fish(1983)의 연구와 Semin과 Greenslade(1985)의 연구를 기반으로 언어적 추상화 현상을 네 가지 용어로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언어 범주화 모델(LCM : linguistic category model)이라고 명명하였다.

언어 범주화 모델(LCM)이란 동사와 형용사를 구체적 혹은 추상적 속성별로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고정관념이 어떻게 언어로 재현되고 그 효과가 어떠한지 잘 설명해준다. 언어 범주화 모델(LCM)은 동사와 형용사를 4가지 수준-행위동사(descriptive action verb), 해석동사(interpretive action verb), 상태동사(state verb) 및 형용사(adjective)로 구분하고 있다(Semin & Fiedler, 1988). 보다 구체적으로, 행위동사는 행위의 시작과 끝이 명료한 일련의 동사를 지칭한다. 즉, 차다(kick), 키스하다(kiss), 밀다(push) 등과 같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미적 유인가가 없고 행위의 판단 혹은 해석은 사건이 일어난 맥락을 중심으로 하며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해석 동사는 하나의 의미를 가졌지만 여러 가지 행위로 표현될 수 있는 동사를 지칭한다. 예컨대, 동사 돕다(help)의 경우 단일한 뜻이지만 여러 종류의 행동으로 묘사될 수 있다. 즉, ‘금전적으로 돕다’, ‘길 찾는 것을 돕다’, ‘시험 준비를 돕다’ 등이다. 그러나 행동에 있어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으며 명료하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미적 유인가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행위동사 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상태 동사는 행위 동사나 해석동사와 같이 단순히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가 아닌 정신적 혹은 감정적 상태를 일컫는 동사이다. 즉, 좋아하다(like), 싫어하다(hate), 존경하다(respect)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위동사와 해석동사 보다 더 추상적인 속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형용사(adjective)는 가장 추상적이면서 덜 구체적인 속성을 가진다. 즉, 공격적인(aggressive), 친절한(kind)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와 비교해 가장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언어 범주화 모델(LCM)에서 세 가지 수준의 동사 그리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Semin과 Fiedler(1988)는 4개 언어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5개 평가차원 즉, 주어에 관한 정보(subject informativeness), 지속가능성(endurability), 논란가능성(disputability), 확인가능성(verifiability), 상황에 대한 정보(situative informativeness)라고 제안하였다. 5개 평가차원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에 대한 정보(subject informativeness)는 한 문장이 주어(인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지속가능성(endurability)은 한 문장이 주어(인물)의 변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속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논란가능성(disputability)은 한 문장 안에 기술된 주어(인물)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넷째, 확인 가능성(verifiability)은 한 문장 안에 기술된 주어(인물)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대한 정보(situative informativeness)란, 한 문장 안에 기술된 주어(인물)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이 주어(인물)가 처한 상황을 잘 말해주는지 여부이다.

5개 평가차원을 기반으로 Semin과 Fiedler(1988)는 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논란가능성의 값의 경우 추상성(abstractness)정도에 따라 형용사>상태동사>해석동사>행위동사의 순서로 값이 높게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반면 확인가능성과 상황에 대한 정보의 값의 경우 구체성(concreteness)정도에 따라 행위동사>해석동사>상태동사>형용사의 순서로 값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4개 언어 범주에 따라 72개의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여준 뒤, 각각을 5개 평가차원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5개 평가차원에 따라 총 72개

단어의 84.72%를 4개 언어 범주로 성공적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논란가능성의 값의 경우 추상성(abstractness)정도에 따라 형용사와 행위동사와의 차이는 명확히 나타났지만 해석동사와 상태동사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확인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의 값에서도 구체성(concreteness)정도에 따라 행위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명확했으나 해석동사와 상태동사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연구결과는 예언대로 나타났으나 해석동사와 상태동사 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해석동사와 상태동사의 분리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4개 언어 범주의 인지적 기능 차이를 하나의 언어 범주 모델로써 완성한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언어적 범주화 모델(LCM)은 한국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범주화 모델이 한국어 단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위에서 기술한 5개 평가 차원에 따라 4개 단어 범주로 분리 가능하지 알아보았다.

언어 내집단 편파(LIB), 언어 기대 편파(LEB)

Semin과 Fiedler(1988, 1991)가 언어 범주화 모델(LCM)을 제안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언어 범주화 모델(LCM)을 기반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따른 언어 편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Maass, Milesi, Zabbini와 Stahlberg(1995)는 언어 내집단 편파(LIB : linguistic intergroup bias)를 제안했다. 언어 내집단 편파(LIB)란, 사회적 고정관념과 일치하는(즉, 기대에 맞는) 행위에 대해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보다 더욱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내집단원에 대해 긍정적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외집단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언어 내집단 편파는 내집단원이 기대되는 긍정적 행동을 하거나 혹은 외집단원이 기대되는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욱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의사소통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내집단 구성원이 긍정적 행동을 한 경우와 외집단 구성원이 부정적 행동을 한 경우, 이러한 행동은 기대(고정관념)와 일치하므로 대상의 행위를 기대(고정관념)에 따라 보다 일반화시켜 형용

사를 사용한 언어적 추상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내집단 구성원이 부정적 행동을 한 경우와 외집단 구성원이 긍정적 행동을 한 경우, 이러한 행동은 기대(고정관념)와 불일치하므로 대상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기울이게 되므로 주로 동사를 사용한 언어적 구체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어 내집단 편파(LIB)는 Maass, Salvi, Arcuri와 Semin(1989)의 연구에서 지지된 바 있다. 즉, 이들은 참여자들을 특정 스포츠 팀에 대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각각 나누고, 이 스포츠 팀 선수들이 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행동을 이야기로 들려주었다. 그 후 내집단과 외집단을 문장으로 묘사하도록 한 결과, 참여자들은 내집단이 긍정적 행동 혹은 외집단이 부정적 행동을 한 조건의 경우 반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추상적인 단어(즉, 상태 동사나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였고, 내집단이 부정적 행동을 그리고 외집단이 긍정적 행동을 한 조건의 경우, 반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주로 동사(즉, 행위동사, 해석동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Maass 등(1995)은 언어 내집단 편파(LIB)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바로 내집단 보호동기와 인지적 과정이라고 제안했다. 즉, 이들은 언어 내집단 편파(LIB)가 주로 집단 상황에서 내집단 정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사회 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79)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Maass 등, 1995). 첫째, 내집단 보호 동기로서 언어 내집단 편파(LIB)는 내집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외집단 구성원의 긍정적 행동보다 내집단 구성원의 긍정적 행동을 언어적으로 보다 추상화하여 긍정적 내집단 이미지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언어 내집단 편파(LIB)란 지각자가 대상에 대해 이미 기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대상에 대해 보다 빠르고 전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대상을 지각자의 기대에 따라 일반화하게 되므로 대상의 기대 일치 행동이 불일치 행동에 비해 더 추상적인 용어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Semin & Spears, 2000).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대상의 행동이 불일치하는 행동에 비해 더 언어적 추상화가 일어난다는 원리는 집단 맥락 뿐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Maass 등, 1995). 이러한 현상을 Wigboldous, Semin과 Spears(2000)는 언어 기대 편파

(LEB : linguistic expectancy bias)라고 명명한 바 있다. 즉, 언어 내집단 편파(LIB)가 집단 상황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라면 언어 기대 편파(LEB)란, 지각자의 대상에 대한 기대 일치여부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다. 즉, 지각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행동은 지각자의 기대와 불일치하는 행동보다 높은 언어적 추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언어 내집단 편파(LIB)보다 더 일반화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언어 기대 편파(LEB)는 여러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지지된 바 있다. 특히 Wigboldous, Semin과 Spears(2000)의 연구에서 남성 혹은 여성 대상의 고정 관념적 행동(남성적 행동, 여성적 행동)과 관련된 글을 참여자들에게 들려 준 뒤, 컴퓨터 타이핑을 통해 글에 나온 대상의 행위를 묘사하도록 한 결과 참여자들은 남성 대상의 남성적 행동과 여성 대상의 여성적 행동의 경우를 반대의 경우보다 더욱 추상화하여 묘사했다. 또한 이들의 연구 2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대상의 국가(네덜란드인, 플랑드르인)와 고정 관념적 행위(네덜란드 : 겸손한, 보수적; 플랑드르 : 경제적, 명랑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참여자들은 대상의 국가와 고정 관념적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더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언어적 추상화는 언어 기대 편파(LEB)와 같은 인지적 과정 이외에 동기(motivation)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Semin, Higgins, Montes, Estourget와 Valencia(2005)의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는데, 이들은 인간이 특정 동기를 충족하고자 할 때, 규제 초점(regulatory focus)에 따라 언어적 추상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의 연구에서 촉진 조건(promotion)에 노출된 사람들은 주로 추상적 언어를, 예방 조건(prevention)에 노출된 사람들은 주로 구체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언어적 추상화는 문화(culture)의 영향을 받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Maass, Politi, Karasawa와 Suga(2006)의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 서양인들의 경우 주로 행위자의 행동의 원인을 그의 내부적 속성에 있다고 추론하는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 시 형용사를 주로 사용하고, 반대로 동양인들은 맥락(context)에 의존하여 사물의 구체적 형태를 중심으로 지각하므로 의사소통 시 주로 동사를 사용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언어적 추상화는 정서(emo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어적 추상화는 상대에 대한 호감도 등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Semin(2007)은 행위에 대한 추상적 혹은 구체적인 언어 표현 방식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근접성(proximity)과 거리감(distance)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그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긍정적 행동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부정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타인을 반대 의 경우보다 타인이 나와 친밀하며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추상화가 의사소통 전달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심리적 근접성과 거리감을 조절하는 일종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편 Stapel과 Semin(2007)은 언어적 추상화가 인간의 인지과정인 지각(perception)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사람들이 추상적(abstract)인 언어를 주로 사용할 때는 특정 대상을 전반적(global)으로 지각하며, 구체적(specific)언어를 주로 사용할 때는 특정 대상을 세부적(specific)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실험 결과, 추상적 언어를 주로 사용한 참여자들은 Palmer의 global-specific task에서 구체적 모양(specific figure)보다 전반적 모양(global figure)을 주로 지각하였고, 구체적 언어를 주로 사용한 참여자들은 전반적 모양(global figure)보다 구체적 모양(specific figure)을 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의 추상성·구체성 차원이 지각과정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 편견의 작용과정은 사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단순한 집단의 구분만으로도 내집단 편애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특출한 집단 범주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에 대한 멤버십을 찾아 정체감을 갖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외집단은 부정적으로 비하하고 내집단을 보다 선호하는 신념과 태도를 보이게 된다. 8개의 도로 구분된 우리나라에서 각각의 도는 개별적인 집단으로서 독특한 고정관념과 내집단 편애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고정관념 관련 연구는 꾸준히 되어 왔고 여러 연구에서 그 실상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충청도 사람들이 타 지역민들과 비교하여 매우 일

관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이진숙(1959)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총 25개 형용사로 이루어진 단어 리스트를 주고 10개 지역민들의 특성을 각각 잘 드러내는 4개의 형용사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서울사람에 대한 특성은 주로 ‘깍쟁이’이고 간사하고 사교적이며 충청도 사람은 예의바르고 온순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김진국(1977), 김혜숙(1988)의 후속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역 고정관념이 나타났음을 보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써 김범준(2002)의 연구 1에서도 각 지역민 중 가장 인상이 좋다고 판단된 지역민은 충청도 사람들이었다. 김혜숙(1988), 민경환(1988)의 연구에서도 김범준(2002)의 연구와 같이 충청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인정이 많다, 유순하다, 소박하다와 같이 긍정적임을 밝힌 바 있다. 정리하면,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능력이나 지적인 특징과는 대비되는 인정 많고 유순한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서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충청도 사람들의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지적 속성이 보다 우세하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많은 지역 고정관념 연구들이 주로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집중했다(김만홍, 1987, 김진국, 1987). 물론 이후에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지역 감정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직접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역 고정관념 연구는 부족했으므로 보다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번 형성된 지역 고정관념은 귀인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거쳐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이는 김혜숙(1993)의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영남과 호남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는 행위에 비해 보다 내적, 안정적 요인으로 귀인하며 인상평가가 극단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언어도 귀인과 같은 인간의 사회(인지)적 추론 과정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행위가 언어로써 어떠한 방식으로(구체적 혹은 추상적) 묘사되느냐에 따라 인지적 추론 및 판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wn & Fish, 1983; Semin & Greensland, 1985). 이에 따라 Semin과 Greensland(1991)는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언어의 특징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했다. 즉, 이들은 구조, 복합적 기술 및 실용적 측면이라는 언어의 3가지 주요 역할을 제안하면서 사회(인지)적 행위에

따라 생성된 언어가 인간의 인지적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첫째, 언어의 '구조'란, 언어란 그것을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구조라는 것이다. 즉, 언어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구조라는 의미이다. 둘째, 언어의 '복합적 기술'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측면'이란 언어가 실제 행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행위자의 행위는 일종의 의도된 결과이며 이는 언어로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는 의사소통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 동시에 언어를 통해 화자의 행위 의도(illocutionary effect)를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자체는 행위자(주어)가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사전가정하고 있고 그것은 일종의 대화체(dialogical) 형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목적어는 행위자(주어)의 의도에 따라 행해지는 몇 가지 행동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행위(social practice)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적 행위는 상호 대인 용어(interpersonal terms)의 선택적 사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정리하면, 언어는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의도(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의사소통의 매개자로서 인지적 추론 및 판단 과정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언어의 '실용적 측면'이 입각하여 언어의 선택적 사용(즉, 구체적 혹은 추상적)이 실제 행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거쳐 확고하게 유지되는데 있어 언어(즉, 의사소통)가 매개할 수 있음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 즉, Wigboldus 등(2000)의 연구에서 대상의 행위가 남성 혹은 여성 고정관념과 불일치 할 때보다 일치할 때 높은 언어적 추상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대상의 행동을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보다 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론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리하면, 고정관념이 유지·확대되는데 있어 귀인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의사소통과 같은 언어가 매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고정관념이 유지되는데 있어 언어를 매개로 한 차별 행동의 가능성을 후속연구로 제안한 바 있다. 즉, 이들은 구체적 혹은 추상적 언어의

선택적 사용이 행위자가 실제 의도하고자 하는 행동을 매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지적 과정(즉, 귀인) 이상으로 행동의도가 고정관념의 유지 및 정당화를 예측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과거 많은 연구들이 인지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고정관념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그러므로 언어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한국 지역고정관념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Semin과 Fiedler가 제안한 언어 범주화 모델(LCM)에 따라 한국어 단어가 4개 언어 범주로 구분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 고정관념에 따른 언어 기대 편파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역고정관념에 의한 언어기대편파가 일어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 고정관념이 귀인판단이나 채용 등의 실질적 행동의도에 확인적(confirmatory)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언어적 추상화가 매개하는 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3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5개 평가차원(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논란가능성, 확인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라 4개 언어범주(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 형용사)가 구분되는지 검토했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의 고향과 행위(지역 고정관념과 일치 혹은 불일치 행위)를 취업 면접상황의 스크립트로 조작하여 지역고정관념 일치여부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 정도의 차이를 검토했다. 즉,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고향에 대한 지역 고정관념과 불일치 할 때보다 일치 할 때, 언어적 추상화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지 검토했다.

연구 2에서 스크립트(문장자극)를 통해 취업 면접 상황에서 대상의 고향과 행위를 조작하였다면, 연구 3에서는 실제 생생한 취업 면접 상황을 보여 주는 비디오테이프(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대상의 고향을 글이 아닌 말씨로 조작하여 가설을 검토했다. 그리고 연구2에서와 같이 지역 고정관념의 일치여부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 정도의 차이를 다시 한 번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 3에서는, 취업 면접상황에서 대상의 행위의 지역고정관념 일치여부에 따라 대상의 행위에 대한 귀인과 행동의도(채용의도)가 달라지는 지에 대해 검토했다. 즉, 대상의 행위가 지역 고정관념과 불일치 할 때보다 일치 할 때 더욱 내부귀인

하고 채용 의도가 높아지는 지를 검토했다. 아울러 연구 3에서는 대상의 행위의 지역고정관념 일치여부가 귀인 혹은 채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언어가 매개하는 지를 검토했다. 즉, 1)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귀인(내부, 외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언어적 추상화가 매개하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2)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채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언어적 추상화가 매개하는지 검토했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단어들이 Semin과 Fiedler(1988)가 제안한 5개 평가 차원 (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논란가능성, 확인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라 4개 언어범주 (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 형용사)로 구분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즉, Semin과 Fiedler(1988)의 연구 결과와 같이 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논란가능성의 값의 경우 추상성(abstractness)정도에 따라 형용사와 행위동사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 여부와 확인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의 값은 구체성(concreteness)정도에 따라 행위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를 검토하였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총 80명의 경기도 내 00대학교 학부생(남자 : 36명 여자 : 44명)을 대상으로 했다.

1차 단어선정

실험에 사용한 동사와 형용사는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사전 (홍재성, 김원근, 김현권, 류시중, 박만규, 박진호, 심봉섭, 안근중, 우순조, 임준서, 2001)과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집 : 형용사 편(정호성, 2001)을 참고했다. 동사는 전체 770개, 형용사는 전체 1100개 중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80개 단어(동사 60개, 형용사 20개)를 선정했다. 이 단어들은 Semin과 Fiedler(1988, 1991)가 제안한 4개 언어범주(즉, 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 형용사)를 정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선

택하였다. 단어 선별기준은, 상호 대인적 용어(즉, 사물이 아닌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 모호하거나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인가가 없고, 비교급이 아닌 단어들을 대상으로 했다 (Semin & Fiedler, 1988).

예비조사

연구자에 의해 선별된 80개 단어가 4개 언어범주에 따라 바르게 구분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3명의 대학원생들에게 4개 언어 범주 구분 기준을 잘 숙지시킨 후, 단어 선별 작업을 하였다. 즉, 4개 범주 중, 형용사를 제외한(의미가 분명하므로 선별작업에서 제외) 3개 범주의 동사들(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 구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Semin & Fiedler, 1988). 선별 결과, 단어를 구분하는 데 있어 의미가 모호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 80개 단어 중 행위동사 92.4%, 해석동사 72.8%, 상태동사 86.7%로 총 54개의 단어가 기대한 바와 같이 구분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 조사에서 얻은 54개의 단어에 Semin과 Fiedler (1988)의 연구에서 쓰인 26개의 영어단어를 한국어로 번역·보충하여 총 80개의 단어를 실험자극으로 사용하였다. 부록1에 실험에 쓰인 단어들을 첨부하였다.

절 차

연구자는 80명이 모여 있는 강의실에 들어가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조사의 목적은 한국어 어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라고 소개하였고 앞으로 참여자들은 동사와 형용사로 만들어진 짧은 문장을 보게 될 것이며 문장을 주의 깊게 읽은 후, 각 문장들의 주어(인물)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지시했다. 각 문장은 주어(인물)에 대한 제한된 정보 혹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몇 개의 문장은 답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장에 제시된 주어(인물)에 대한 정보에만 초점을 기울여서, 가능한 추론을 할 것을 권장했다(Semin & Fiedler, 1988) 특히, 각 문장들 다음에 제시된 질문에 모두 답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 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 위 문장은, 주어(인물)의 특징을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어에 대한 정보) 2) 위 문장은, 주어(인물)의 변하지 않는 특징을(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성) 3) 위 문장의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가능성) 4) 위 문장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란가능성) 5) 위 문장은, 주어(인물)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대한 정보). 80명의 참여자들은 20개의 단어로(4개 언어범주에서 각 범주 당 문장 5개 씩, 총 20개) 만들어진 짧은 문장을 읽고 각 단어에 대해 위의 5개 질문에 따라 각각 평가하였다.

종속변인

참여자들은 총 80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을 읽고 각 문장에 나타난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5개 평가 차원(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논란가능성, 확인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척도는 7점 척도였다(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평가 질문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1)주어에 대한 정보 2)지속가능성 3)확인가능성 4)논란가능성 5)상황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었고 이것이 다섯 개의 종속 측정 질문이었다(Semin & Fiedler, 1988).

결과 및 논의

총 80개의 단어를 가지고 5개 평가차원(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논란가능성, 확인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라 평가한 평균값(표 1)을 독립변인으로, 4개 언어 범주(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 형용사)를 종속 변인으로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은 1) 80개 단어가 4개 언어범주에 따라 분리 가능한 지 여부와 2) 5개 평가 차원 각각이 4개 언어범주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각각의 영향력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판별의 기준들이(5개 평가차원) 4개 언어범주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지 판별함수를 도출한 결과, 표 2와 같이 판별함수 1의 고유 값 분산 비율은 84.1%였고 정준상관계수는(판별함수와 언어범주 간 상관 값) $r=.85$ 로써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즉, 판별 함수1에 의해 4개 언어범주의 판별이 대부분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독립변인(5개 평가 차원)이 종속변인(4개 언어범주)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상대적 기여도(설명력)를 검토했다.

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준 판별함수 계수는 주어정보 $\beta=.35$ 지속가능성 $\beta=.54$, 확인가능성 $\beta=.56$, 논란가능성 $\beta=.01$, 상황정보 $\beta=.13$ 이었고 확인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확인가능성에 있어 형용사의 평균값이 행위동사와 해석동사의 평균값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경우 행위동사나 해석동사일 때보다 형용사일 때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 80개 단어 중 72.5%(58개)가 바르게 분리되었는데, 행위동사는 90%, 해석동사 65%, 상태동사 55%, 형용사의 80%가 올바르게 분리되었다(22개 단어는 분리되지 않음). 한편 Semin과 Fiedler(1998, 1991)의 연구에서 해석동사와 상태동사의 분리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행위동사나 형용사에 비해 해석동사와 상태동사의 분리정도가 행위동사나 형용사와 비교해서 낮았다.

다음으로 5개 평가차원에 따라 4개 언어범주들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주어에 대한 정보에 있어 4개 언어 범주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3, 76)=50.58, p<.01$). 사후검정 결과(Scheffe), 예상대로 행위동사($M=2.21$)는 해석동사($M=4.12$), 상태동사($M=4.65$), 형용사($M=5.78$)보다 평균값이 낮았다. 또한

표 1. LCM의 5개 평가차원에 따른 4개 언어범주의 평균 값(()는 표준편차)

종속변인	단 어 범 주				
	주어 정보	지속가능성	확인가능성	반박가능성	상황 정보
행위동사	2.21(1.58)	1.96(.47)	5.76(.94)	3.24(1.02)	5.01(.96)
해석동사	4.12(1.00)	3.36(.92)	5.34(.81)	3.45(.91)	5.05(.88)
상태동사	4.65(.87)	3.83(.88)	3.82(.95)	4.11(.92)	4.03(1.04)
형 용 사	5.78(1.06)	5.15(1.14)	3.76(.88)	4.35(1.03)	3.11(.84)

표 2. LCM의 5개 평가차원에 따른 직접적 판별함수분석의 결과

예측변인	평균(표준 편차)	판별함수와 변인의 상관		단 변량 F(3, 76)	정준판별함수계수 (β)
		1	2		
주어에대한정보	4.19(1.58)	.86	.32	50.58	.35
지속가능성	3.58(1.44)	.80	.04	43.72	.54
확인가능성	4.67(1.25)	-.59	.42	26.20	-.56
논란가능성	3.79(1.06)	.28	-.23	5.84	-.01
상황에대한정보	4.30(1.22)	-.48	.71	19.38	.13
아이젠 값		2.63	.28		
설명 변량		84.1%	9.1%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 72.5%
정준 상관		.85	.47		BOX'S M=73.05 p<.03
람 다 값		.18***	.64**		

p<.01, *p<.001

해석동사(M=4.12)보다 형용사(M=5.78)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상태동사(M=4.65)보다 형용사(M=5.78)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2) 지속가능성에 있어 4개 언어 범주 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했다(F(3, 76)=43.73, p<.01). 사후검정 결과(Scheffe), 예상대로 행위동사(M=1.96)는 해석동사(M=3.36), 상태동사(M=3.83)와 형용사(M=5.15)보다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해석동사(M=3.36)보다 형용사(M=5.15)가, 상태동사(M=3.83)보다 형용사(M=5.15)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3) 확인가능성에 있어 4개 언어범주 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했다(F(3, 76)=26.20, p<.01). 사후검정 결과(Scheffe), 예상대로 행위동사(M=5.76)가 상태동사(M=3.82)와 형용사(M=3.76)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해석동사(M=5.31)의 경우도 상태동사(M=3.82)와 형용사(M=3.76)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4) 논란가능성에 있어 4개 언어범주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했다(F(3, 76)=5.84, p<.01). 사후검정 결과(Scheffe), 예상대로 행위동사(M=3.24)보다 형용사(M=4.35)가 해석동사(M=3.45)보다 형용사(M=4.35)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5) 상황에 대한 정보역시 4개 언어 범주 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했다(F(3, 76)=19.38, p<.01). 사후검정 결과(Scheffe), 예상대로 행위동사(M=5.01)가 상태동사(M=4.03)와 형용사(M=3.11)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해석동사(M=5.05)가 상태동사(M=4.03)와 형용사(M=3.11)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요

약하면, 기대한 바와 같이 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및 논란가능성의 평균값은 추상성(abstracness) 정도에 따라 형용사와 행위동사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고 확인가능성과 상황에 대한 정보의 경우도 구체성(concreteness) 정도에 따라 행위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단어들은 4개의 언어범주로 구분되었다. 정리하면, 연구 1의 결과는 Semin과 Fiedler(1998, 1991)의 언어 범주화 모델(LCM)의 한국어 적용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에 근거하여 대상의 행동의 지역 고정관념 일치여부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 정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특히, Maass(1989)의 연구에서 보여 준 언어적 추상화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참여자들에게 자유롭게 대상을 문장으로 묘사하는 과제를 실시하고 언어 범주화 모델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다음 언어적 추상화 점수를 계산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 2에서는 언어 범주화 모델(LCM)에 따른 언어 기대 편파(LEB)를 검토했다.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의 고향(충청대 서울)과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를 조작하여 지역고정관념 일치여부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 정도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대상의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가 대상의 고향에 대한 지역 고정관념과 불일치 할 때보다 일치 할 때 언어적 추상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지 검토했다. 특히 대상의 고향과 행위를 취업 면접상황의 스크립트로 조작함으로써 중요한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지역고정관념이 언어적 추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가설 :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고향에 대한 지역 고정관념과 불일치 할 때보다 일치 할 때, 언어적 추상화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및 설계

총 120명의 경기도 내 00대학교 학부생(남자 : 56명 여자 : 6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실험설계는 2(대상의 고향 : 충청 대 서울)×2(행위 : 인정 많은 대 지적인)의 2요인 설계이다.

예비조사

충청사람과 서울사람에 대한 지역고정관념 일치 혹은 불일치 행위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김혜숙, 1988)에 근거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00대 심리학 교양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청 사람 평가 조건과 서울 사람 평가 조건에 각각 43명씩 배정된 뒤, 지역 고정 관념을(즉, 서울-지적인, 충청-인정 많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문항에 답하도록 했다. 당신은 다음의 특성들이(지적인, 인정 많은, 유순한, 능력 있는) 얼마나 서울 사람(혹은 충청 사람)의 특성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척도는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였다. 그 후,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지적인’의 경우 충청사람($M=3.09$)보다 서울사람($M=3.88$)일 때 더욱 지적이라고 평가되었다($F(1,84)=16.6, p<.01$). 또한 ‘인정 많은’ 특성의 경우, 서울사람($M=2.72$)보다 충청사람($M=4.44$)일 때 더욱 인정이 많다고 평가되었다($F(1,84)=51.8, p<.01$). 다음으로 ‘유순한’의 경우, 서울사람($M=2.88$)일 때 보다 충청사람($M=4.58$)일 때 더욱 유순하다고 평가되었다($F(1, 84)=61.9, p<.01$).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의 경우 충청사람($M=3.32$)일 때보다 서울사

람($M=4.16$)일 때 더욱 능력 있다고 평가되었다($F(1, 84)=22.9, p<.01$).

도구(스크립트)

대상의 고향과 행위를 조작하기 위해 취업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수험생의 답변이 기술된 스크립트를 제작했다. 스크립트 첫 장에는 실험의 목적을 포함한 안내문이 기술되어 있었다. 즉, 취업 면접상황에서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이며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수험생의 답변을 주의 깊게 읽은 뒤 수험생에 대해 느낀 대로 각 문항에 답할 것을 지시한 안내문이 기술되었다. 다음 장에는 수험번호, 수험생 나이, 고향이 기술된 신상정보가 기술되었다. 수험번호와 나이는 각 조건에 따라 통제하여 동일하게 기술했으나 서울 조건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로 충청조건의 경우 ‘충청도 제천’으로 기술했다. 고향이 조작된 스크립트의 다음 장에는 행위를 조작하기 위한 면접관의 질문과 이에 따른 수험생의 답변이 기술되었다. 특히, 수험생의 지적인 혹은 인정 많은 행위 조작 시, 스크립트 자체의 추상적 표현으로 인한 편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동사의 형태로써 조작하였다. 구체적인 조작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많은 행위 조건의 경우 면접관의 질문은 수험생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 기술되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타인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2)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3)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이에 따라 인정 많은 행위를 한 수험생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 2) “학창시절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했다” 3) “매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나 물심양면 도와줬다.” 다음으로 지적 행동 조건의 경우 면접관의 질문은 수험생의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 기술되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을 위해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다니까?”, 2) “대학 재학 시절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습니다니까?”, 3) “전공지식과 관련된 질문으로써 마케팅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니까?” 이에 따라 지적인 행위를 한 수험생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3개 외국어 공인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보유했다.”, 2) “식견을 넓히고자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다.”, 3) “공모전 수상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마케팅 활동에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절 차

연구자는 60 명이 모여 있는 강의실에 들어가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실험의 목적은 대인 인상 형성 즉, 면접상황에서의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라고 소개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에게 한 취업 수험생에 대한 짧은 인상 정보를 보게 될 것이며 그 후, 취업 수험생의 면접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읽게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주의 깊게 읽은 뒤, 제시된 취업 수험생에 대해 느낀 바에 따라 각 문항에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종속변인

언어적 추상화

참여자들에게 면접상황에 묘사된 수험생의 경험과 행동을 약 3분간 회상하도록 하고 “이 사람은 _____”의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에 수험생에 대하여 머리에 떠오르는 바를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자유롭게 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미래형이나 추측 형(-일 것이다 ~일 것 같다)으로 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과거형이나 현재형 (~했다 ~하고 있다)으로 묘사 할 것을 지시했다. 최대한 10개의 문장으로 기술할 것을 권유했다. 기술된 묘사문은 두 명의 대학원생 평가자가 4개 언어범주(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 형용사)에 따라 분류한 뒤, 이를 Semin과 Fiedler(1988, 1991)가 제안한 언어적 추상화 계산법¹⁾에 의해 계산하였다. 평가 자 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이다.

결과 및 논의

언어적 추상화 : 언어 기대 편파(LEB)

언어적 추상화 점수에 대한 2(대상의 고향 : 충청 대 서울)×2(행위 : 인정 많은 대 지적인)의 이원 변량분석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F(1, 116)=4.55, p<.05$). 즉, 대상의 고향별 행위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그림 1과

1) 언어적 추상화 점수=(행위동사×1점+해석동사×2점+상태동사×3점+형용사×4점)/총 단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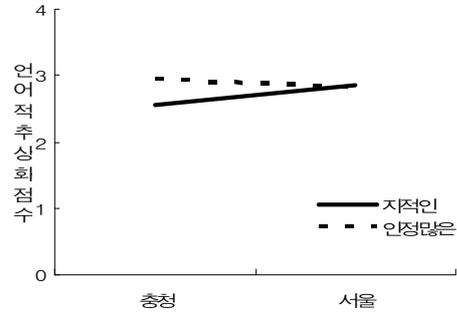


그림 1. 대상의 고향과 행위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 점수

같이 고향이 충청인 경우 참여자들은 지적인 행위 보다 ($M=2.57$) 인정 많은 행위($M=2.95$)일 때 대상을 더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했다($F(1, 116)=7.65, p<.01$). 그러나 고향이 서울일 때, 인정 많은 행위($M=2.82$)와 지적인 행위($M=2.86$)에 차이가 없었다($F(1, 116)=1.20, p=.18$). 또한 행위별 대상 고향의 단순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인 행위의 경우 참여자들은 충청사람($M=2.57$)보다 서울 사람($M=2.86$)일 때 대상을 더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했다($F(1, 116)=4.31, p<.05$). 그러나 인정 많은 행위일 때, 서울사람($M=2.82$)과 충청 사람($M=2.96$)의 차이가 없었다($F(1, 116)=1.34, p=.26$).

대상의 행위가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가에 따라 언어적 추상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주목할 점이다. 참여자들은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더욱 추상화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고향이 충청인 경우, 인정 많은 행위를 한 조건에서 ‘이 수험생은 인정 많다.’, ‘유순하다.’ 혹은 ‘착하다.’고 묘사하였고 지적인 행위의 경우, 고향이 서울인 조건에서 ‘이 수험생은 능력 있다.’, ‘부지런하다.’ 혹은 ‘똑똑하다.’와 같이 형용사를 사용하여 대상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묘사했다. 한편 고향이 충청인 경우, 지적인 행동을 한 조건에서 ‘이 수험생은 외국어 자격증을 3개 가지고 있다.’ 혹은 ‘공모전에서 수상했다.’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고향이 서울인 경우, 인정 많은 행위를 한 조건에서 ‘이 수험생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는 ‘오래 알고지낸 친한 친구가 있다.’와 같이 대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한편, 기대와 달리

고향이 서울일 때, 인정 많은 행위와 지적인 행위 간 차이가 없었고 인정 많은 행위일 때, 서울 사람과 충청사람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글로써 대상의 고향과 행위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고정관념이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서울사람이 인정 많은 행위를 한 경우 대상을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각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연구 2의 결과는 지각자의 기대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대상에 대하여 더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지각자의 기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보다 대상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언어 기대 편파(LEB)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3

앞의 연구 2에서는 대상의 행위와 대상의 고향 지역 관념 일치여부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 정도의 차이를 살펴해보았다. 그러나 연구 2의 절차 상, 글로써 대상의 고향과 행위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글(스크립트)을 통한 조작이 참여자들의 고정관념을 크게 활성화 시키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 3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스크립트 대신 일상생활의 상황과 보다 근접하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 내집단 편애에 의해 결과가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편파를 통제시키기 위해 연구 3에서는 참여자 본인과 부모님의 고향을 통제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지역 고정관념 일치여부에 따른 더 뚜렷한 언어적 추상화 정도의 차이를 기대했다. 또한 연구 3에서는 지역 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 및 채용의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이를 언어가(즉, 언어적 추상화) 매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정리하면, 연구 3은 연구 2에서 나타난 언어 기대 편파(LEB)를 반복 검증(replicate)하고 언어 즉, 언어적 추상화가 귀인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나 채용의도와 같은 실제 행동의도를 매개하는 지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가설

가설 1 : 대상의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가 대상의 지역 고정관념과(충청-인정 많은, 서울-지적인)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할 때 언어적 추상화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 대상의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가 대상의 지역 고정관념과(충청-인정 많은, 서울-지적인)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할 때 대상의 행위를 더욱 내부 귀인 할 것이고, 일치할 때보다 불일치할 때 더욱 외부 귀인 할 것이다.

가설 3 : 대상의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가 대상의 지역 고정관념과(충청-인정 많은, 서울-지적인)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할 때 채용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4-1 :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내부 귀인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효과를 언어적 추상화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채용의도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효과를 언어적 추상화가 매개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참여자 및 설계

총 100명의 경기도 내 00대학교 학부생(남자 : 42명 여자 : 5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실험설계는 2(대상의 고향 : 충청 대 서울) × 2(행위 : 인정 많은 대 지적인)의 2요인 설계이다.

절차

참여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의 목적을 대인 인상형성 즉, 면접상황에서의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라고 소개했다. 그 다음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취업 수험생의 면접 상황을 묘사하는 영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 깊게 시청한 뒤, 제시된 수험생에 대해 느낀 바에 따라 각 문항에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도구(비디오테이프)

연구 2에서 사용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대상의 고향(충청 대 서울)과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를 서울 및 충청 말씨로 답변한 비디오테이프를 녹화했다. 즉, 각 조건 당 말씨 조작은 동일 인물의 수험생이 충청 조건에서는 충청도 말씨로, 서울 조건에서는 서울 말씨로 녹화했다. 비디오테이프 첫 장면에는 면접 상황임을 의미하는 ‘○ ○ 그룹 면접장소’라는 팻말이 나타나고 이어서 정장 차림의 남성 수험생이 면접장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났다. 면접장에는 정장 차림의 2명의 남성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수험생은 면접관에게 가볍게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아 수험번호와 이름이 포함된 자기소개를 했다. 다음으로 면접관이 스크립트에 나타난 대로 질문하고 수험생은 답변했다. 각 조건 당 약 3분 10초 분량으로 녹화되었다.

예비조사

20명의 00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3에서 사용할 비디오테이프가 조작한대로 지각되는 지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4종류의 비디오테이프를 반복해서 보고 대상인물의 고향과 행동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선 대상의 고향(충청 대 서울) 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에 답하도록 지시했다. ‘당신은 이 수험생이 얼마나 전형적인 서울사람(혹은 충청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척도는 6점 척도였다(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서울사람 평가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고향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대상의 말씨(고향)가 충청($M=1.45$)일 때보다 서울($M=4.17$)일 때 더욱 서울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F(1, 76)=181.9, p<.01$). 또한 충청사람 평가에 대한 고향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대상의 말씨(고향)가 서울($M=2.10$)일 때 보다 충청($M=4.37$)일 때 더욱 충청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F(1, 76)=69.8, p<.01$). 이로써 고향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의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 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에 답하도록 지시했다. ‘당신은 이 수험생이 얼마나 인정 많은(혹은 지적인)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척도는 6점 척도였다(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인정 많은 행위 평가에서 행위의 주 효과가 유

의미했다. 즉, 지적인 행위($M=3.50$)보다 인정 많은 행위($M=4.60$)가 더욱 인정 많다고 평가되었다($F(1, 76)=24.5, p<.01$). 또한 지적인 행위 평가에 대한 행위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인정 많은 행위($M=3.07$)보다 지적인 행위($M=3.93$)가 더욱 지적이라고 평가되었다 ($F(1, 76)=14.8, p<.01$). 요약하면 행위는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

종속변인

조작 점검

연구3에 참여한 100명의 00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작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대상의 고향(충청 대 서울)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에 답하도록 지시했다. ‘당신은 이 수험생이 얼마나 전형적인 서울사람(혹은 충청사람)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척도는 6점 척도였다(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다음으로 대상의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에 답하도록 지시했다. ‘당신은 이 수험생이 얼마나 인정 많은(혹은 지적인)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척도는 6점 척도였다(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언어적 추상화

연구 2와 절차가 같다. Semin과 Fiedler(1988, 1991)가 제안한 언어적 추상화 계산법에 의해 계산했다. 평가 기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이다.

귀인(내부, 외부)

내부 혹은 외부 귀인을 묻는 총 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은 수험생의 행동이 얼마나 이 사람의 내적(기질적) 특징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은 수험생의 행동이 얼마나 이 사람의 외적(상황적) 특징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당신은 수험생의 행동이 얼마나 이 사람의 지속적인 특징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당신은 수험생의 행동이 얼마나 이 사람의 일시적인 상황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내부 귀인을 묻는 1번 문항과 지속적 귀인을 묻는 3번 문항을 평균을 내 내부귀인 문항으로 지정했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다. 그리고 외부 귀인을 묻는 2번 문항과 일시적 귀

인을 묻는 4번 문항을 평균을 내 외부귀인 문항으로 지정했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89이다.

행동의도(채용의도)

실제 행동의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채용 정도를 묻는 2개의 문항을 선정했다. 즉 1) 당신이 면접관 이라면 최종적으로 수험생 000씨를 채용하시겠습니까? 2) 당신은 이 수험생을 직장 동료로 고용하시겠습니까?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89이다.

결과 및 논의

조작점검

대상의 고향(충청 대 서울) 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각 조건의 참여자들에게 ‘당신은 이 수험생이 얼마나 전형적인 서울 사람(혹은 충청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서울 사람 평가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고향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고향이 충청($M=1.74$)일 때보다 서울($M=4.20$)일 때 더욱 서울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F(1, 96)=169.6, p<.01$). 또한 충청 사람 평가에 대한 고향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고향이 서울($M=2.40$)일 때 보다 충청($M=4.12$)일 때 더욱 충청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F(1, 96)=56.7, p<.01$). 이로써 고향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 다음으로 대상의 행위(인정 많은 대 지적인) 조작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에 답하도록 지시했다. ‘당신은 이 수험생이 얼마나 인정 많은(혹은 지적인)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척도는 6점 척도였다(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인정 많은 행위 평가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행위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지적인 행위($M=2.96$)보다 인정 많은 행위($M=3.64$)가 더욱 인정 많다고 평가되었다($F(1, 96)=13.9, p<.01$). 또한 지적인 행위 평가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 행위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인정 많은 행위($M=3.18$)보다 지적인 행위($M=4.06$)가 더욱 지적이라고 평가되었다 ($F(1, 96)=25.1, p<.01$). 요약하면 행위는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

언어적 추상화 : 언어 기대 편파(LEB)

언어적 추상화 점수에 대한 2(대상의 고향 : 충청 대 서울) \times 2(행위 : 인정 많은 대 지적인)의 이원 공 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즉, 출신지에 따른 편파를 통제하기 위해 참여자 본인 및 부모님의 고향을 공 변인으로 통제 하는 공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F(1, 93)=8.47, p<.01$). 각 고향 별 행위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예상대로 고향이 충청일 때 참여자들은 지적인 행위($M=2.81$)보다 인정 많은 행위($M=3.11$)일 때 대상을 더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했다($F(1, 93)=3.16, p<.05$). 한편 고향이 서울인 경우, 참여자들은 인정 많은 행위보다($M=2.61$) 지적인 행위($M=3.01$)일 때 대상을 더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했다($F(1, 93)=5.46, p<.05$). 또한 각 행위별 고향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인정 많은 행위의 경우, 참여자들은 고향이 서울($M=2.81$)인 경우보다 충청($M=3.11$)일 때 대상을 더 언어적으로 추상화하여 묘사했다($F(1, 93)=8.58, p<.01$).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적인 행위의 경우 서울($M=3.01$)과 충청($M=2.81$) 간 차이는 없었다($F(1, 93)=.87, p=.24$). 이는, 면접 상황에서 지적인 행위가 인정 많은 행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인 행위 자체가 특출해져 참여자들은 고향과 상관없이 대상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 2의 결과와 비교할 때, 각 고향별 행위의 단순 주 효과가 유의미하여 연구 2에서보다 지역 고정관념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가 부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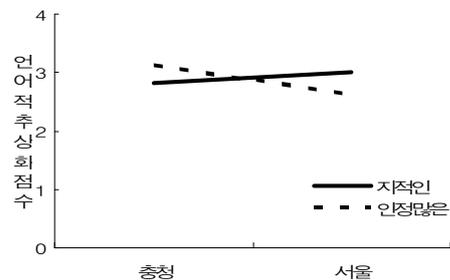


그림 2. 대상의 고향과 행위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점수

귀인(내부, 외부)

내부귀인에 대한 2(대상의 고향 : 충청 대 서울)×2(행위 : 인정 많은 대 지적인)의 이원 공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93)=3.76, p<.05$).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의 고향별 행위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기대한대로 고향이 서울인 경우, 참여자들은 인정 많은 행위($M=3.24$)보다 지적인 행위($M=4.08$)일 때 대상의 행위를 더 내부 귀인 했다($F(1, 93)=8.11, p<.01$). 그러나 기대한 바와 다르게 고향이 충청일 때 인정 많은 행위($M=4.36$)와 지적인 행위($M=4.52$) 간 내부 귀인의 차이는 없었다($F(1, 93)=1.29, p=.59$). 대상의 행위별 고향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행위가 인정 많을 때 참여자들은 고향이 서울($M=3.24$)일 때보다 충청($M=4.36$)일 때 대상의 행위를 더 내부귀인 했다($F(1, 93)=14.4, p<.01$). 또한 기대한 바와 다르게 행위가 지적일 때 충청($M=4.52$)과 서울($M=4.08$)간 내부귀인의 차이는 없었다($F(1, 93)=2.23, p=.14$). 또한 고향의 주 효과와 행위의 주 효과가 각각 유의미했다. 즉, 참여자들은 고향이 서울일 때($M=3.63$)보다 충청($M=4.40$)일 때 보다 내부 귀인 했다($F(1, 93)=13.4, p<.01$). 또한 행위가 인정 많은 경우($M=3.77$)보다 지적일 때($M=4.26$) 보다 내부 귀인 했다($F(1, 93)=10.7,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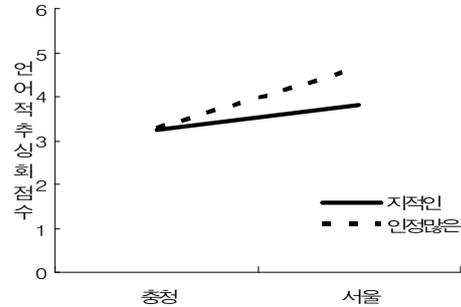


그림 3. 대상의 고향과 행위에 따른 내부귀인

외부 귀인에 대한 2(대상의 고향 : 충청 대 서울)×2(행위 : 인정 많은 대 지적인)의 이원 공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F(1, 93)=5.74, p<.02$).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의 고향별 행위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고향이 서울일 때, 참여자들은 지적인 행위($M=3.82$)보다 인정 많은 행위($M=4.64$)일 때 대상의 행위를 더 외부귀인 했다($F(1, 93)=8.17, p<.01$). 한편 고향이 충청일 때, 인정 많은 행위($M=3.28$)와 지적인 행위($M=3.24$)간 외부 귀인의 차이는 없었다($F(1, 93)=0.26, p=.59$). 대상의 행위별 고향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행위가 지적인 경우 참여자들은 고향이 충청($M=3.24$)일 때보다 서울 일 때($M=3.82$) 더욱 대상의 행위를 외부귀인 했다($F(1, 93)=4.09, p<.04$). 또한 행위가 인정 많을 때 참여자들은 고향이 충청($M=3.28$)인 경우보다 서울($M=4.64$)인 경우 더욱 대상의 행위를 외부귀인 했다($F(1, 93)=22.46, p<.05$). 한편 고향의 주 효과와 행위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참여자들은 고향이 충청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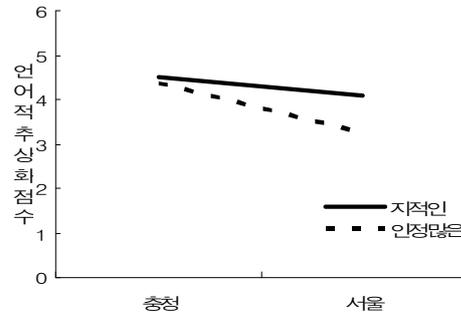


그림 4. 대상의 고향과 행위에 따른 외부귀인

($M=3.26$)보다 서울($M=4.23$)일 때 보다 대상의 행위를 외부귀인 했고($F(1, 93)=25.7, p<.01$) 행위가 지적일 때보다 ($M=3.53$) 인정 많을 때($M=3.96$) 대상의 행위를 보다 외부 귀인 했다($F(1, 93)=7.77, p<.01$). 요약하면, 내부귀인과 외부귀인에 대한 가설 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행동의도(채용 의도)

실질적 행동의도를 알기위해 채용의도에 대한 2(대상의 고향 : 충청 대 서울)×2(행위 : 인정 많은 대 지적인)의 이원 공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93)=6.62, p<.01$). 그림 5와 같이, 대상의 고향 별 행위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예상대로 대상의 고향이 서울인 경우, 참여자들은 수험생이 인정 많은 행위($M=3.36$)를 한 경우보다 지적인 행위($M=4.14$)를 한 경우 더욱 채용하겠다고 답했다($F(1, 93)=8.6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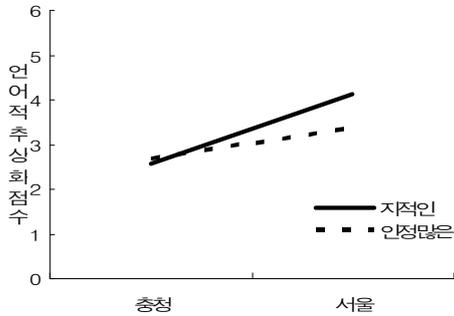


그림 5. 대상의 고향과 행위에 따른 채용 의도

그러나 대상의 고향이 충청인 경우 인정 많은 행위($M=2.66$)와 지적인 행위($M=2.58$)간 차이는 없었다($F(193)=2.50, p=.24$). 대상의 행위별 고향의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지적인 행위의 경우, 참여자들은 수험생의 고향이 충청($M=2.58$)일 때 보다 서울($M=4.14$)일 때 더 채용하겠다고 답했다($F(1, 96)=41.89, p<.01$). 한편 인정 많은 행위의 경우, 예상과 달리 참여자들은 수험생의 고향이 충청($M=2.66$)일 때보다 서울($M=3.36$)일 때 더욱 채용하겠다고 답했다($F(1, 93)=37.49, p<.01$). 또한 말씨의 주 효과와 행위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참여자들은 대상의 말씨가 충청($M=2.62$)일 때 보다 서울($M=3.75$)일 때 더욱 채용하겠다고 답했다($F(1, 93)=44.3, p<.01$). 그리고 대상의 행위가 인정 많을($M=3.01$) 때보다 지적인($M=3.36$) 때 더욱 채용하겠다고 답했다($F(1, 93)=4.41, p<.03$). 요약하면 채용의도에 대한 가설 3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매개분석

지역 고정관념에 따라 대상의 행동을 인지적으로 해석 즉, 귀인하고 실제 행동의도(채용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언어가(즉, 언어적 추상화)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대상의 행위가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즉, 충청 대 인정 많은, 서울 대 지적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즉, 충청 대 지적인, 서울 대 인정 많은)로 구분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했다. 즉, 행위에 대한 귀인이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을 언어적 추상화가 매개하는지 검토하였다.

그림 6과 같이, 행위의 지역고정관념 일치 여부와 언어

적 추상화 그리고 귀인²⁾의 매개모형 검증에서 1)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beta=.25, p=.27$). 2)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언어적 추상화를 예측하는 효과는 유의미했다($\beta=.35, p<.01$). 3) 언어적 추상화가 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beta=-.09, p=.62$). 4) 언어적 추상화를 통제 한 후 지역 고정관념 일치여부가 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beta=.28, p=.58$). 요약하면,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귀인을 예측하는데 있어 언어적 추상화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그림 7과 같이, 지역 고정관념 일치(대상의 고향과 행위 일치)여부와 언어적 추상화 그리고 채용정도의 매개모형 검증에서 1)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채용정도를 예측하는 효과는 유의미했다($\beta=.43, p<.01$). 2)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언어적 추상화를 예측하는 효과는 유의미했다($\beta=.35, p<.01$). 3) 언어적 추상화는 채용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beta=-.15, p=.40$). 4) 언어적 추상화를 통제 한 후 지역 고정관념 일치여부가 채용의도를 예측하는 효과는 유의미했다($\beta=.48, p<.05$). 요약하면, 지역 고정관념 일치 여부가 채용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언어적 추상화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3의 결과는 연구2의 결과를 반복하면서 각각의 기대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대상에 대하여 더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각각의 기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보다 대상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전형적인 언어 기대 편파(LEB)현상을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반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대했던 귀인판단(내부, 외부)과 채용의도에서 결과가 일부 지지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예상대로 대상의 고향이 서울일 때, 인정 많은 행위인 경우보다 지적인 행위인 경우 대상을 더 내부 귀인 했다. 그리고 대상의 행위가 인정 많을 때, 참여자들은 고향이 서울인 경우보다 충청일 때 대상을 더 내적으로 귀인 했다. 한편 기대와 달리 참여자들은 고향이 서울인 경우보다 충청일 때 더 내부 귀인 했고 행위가 인정 많을 때보다 지적인 때 더 내부귀인 했다. 또한 고향

2) 외부귀인을 역 코딩 한 후, 내부귀인 문항과 합친 평균값을 귀인문항으로 선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부귀인, 낮을수록 외부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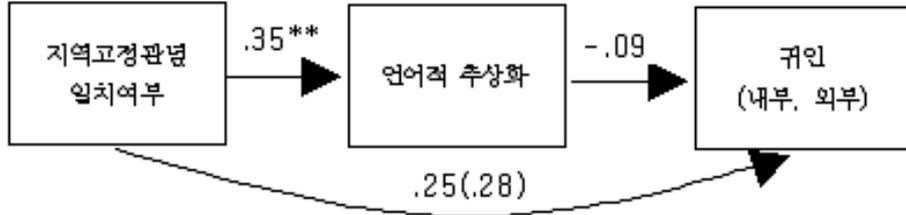


그림 6. 언어적 추상화를 매개로 한 지역 고정관념 일치여부에 따른 귀인



그림 7. 언어적 추상화를 매개로 한 지역 고정관념 일치여부에 따른 채용의도

이 충청일 때 인정 많은 행위와 지적인 행위 간 내부귀인 그리고 외부귀인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의 고향 즉, 충청을 말씨로써 조작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말씨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여 내부 귀인 하여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행위가 지적인 때, 기대와 달리 서울과 충청 간 내부 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면접상황에서 지적인 행위가 인정 많은 행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인 행위 자체가 특출해져 고향 간(즉, 서울 대 충청)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혹은 이러한 결과는 충청 사람이 지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참여자들의 기대(즉, 고정관념)와 상충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효과(augmenting)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지적 행위에 대한 귀인에서 서울과 충청의 차이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부귀인에 있어 기대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고향이 서울일 때, 지적인 행위보다 인정 많은 행위인 경우 대상을 더 외적으로 귀인 했다. 또한 행위가 인정 많을 때, 참여자들은 말씨가 충청일 때보다 서울일 때, 대상을 더 외적으로 귀인 했다. 그러나 기대한 바와 다르게 대상의 행위가 지적인 경우, 참여자들은 고향이 충청일 때보다

서울 일 때 대상을 더 외적으로 귀인 했다. 또한 고향이 충청인 경우보다 서울일 때 더 외부 귀인 했고 행위가 지적인 때보다 인정 많을 때 더 외부 귀인 했다. 본 결과는, 서울 사람의 경우 지방사람 보다 그 사람이 가진 속성에 대해 외부귀인 하는 경향성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서울 사람은 다른 지방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교육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살기 때문에 지적이고 능력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그러한 속성을 내부적으로 귀인하지 않았을 수 있다.

채용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대했던 바를 일부 지지 하였는데 즉, 대상의 고향이 서울 인 경우 참여자들은 대상이 인정 많은 행위를 했을 때보다 지적인 행위를 한 경우 더욱 수험생을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상이 지적인 행위를 한 경우, 참여자들은 말씨가 충청일 때보다 서울 일 때 수험생을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대한 바와 다르게 인정 많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대상의 고향이 충청인 경우보다 서울일 때 더욱 수험생을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상의 고향이 충청일 때보다 서울일 때 더욱 채용하겠다고 답했고, 대상의 행위가 인정 많을 때보다 지적인 때 더 채용하겠

표 3. 연구 3의 주요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 표

	언어적 추상화	내부귀인	외부귀인	채용의도	인정 많은 (조작점검)	지적인 (조작점검)
언어적 추상화	1	-.016	.013	-.022	.067	-.049
내부귀인	-.016	1	-.698**	-.075	.155	.054
외부귀인	.013	-.698**	1	.257**	.001	.092
채용의도	-.022	-.075	.257**	1	.266**	.611**
인정많은(조작점검)	.067	.155	.001	.266**	1	.091
지적인(조작점검)	-.049	.054	.092	.611**	.091	1

** $p < .01$, *** $p < .001$

다고 답했다. 이는 채용 상황에서 지방 사람보다 서울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채용 상황에서는 인정 많은 행위보다 지적인 행위가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표 3에서 채용의도와 다른 측정들의 상관을 구한 결과, 인정 많은 행위의 평가점수(조작점검)보다 지적인 행위의 평가 점수가 채용의도와 더욱 상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연구 3에서는 지역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대상의 행동을 해석하고(즉, 귀인) 이에 따른 실제 행동의도(즉, 채용정도)가 나타나는 데 있어 언어적 과정(즉, 언어적 추상화)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모형을 검토했지만 기대했던 언어적 과정(추상화)의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추상화가 참여자들이 측정의도를 짐작할 수 없는 암묵적(implicit)방식이었고 반면 귀인이나 채용의도의 측정은 자기 보고(self report)방식으로써 매우 명시적(explicit)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일부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표 3에서 언어적 추상화점수와 내부, 외부귀인 및 채용의도 간 상관값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Semin과 Fiedler(1988, 1991)가 제안한 언어 범주화 모델(LCM)에 따라 한국어 단어가 4개 언어 범주로 구분 가능한 지 여부와 지역 고정관념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 정도(즉, 언어 기대 편파)와 귀인 및 행동의도(채용여부)를 검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단어가 언어 범주화 모델(LCM)이 주장한 바와 같이 5개 평가 차원(주어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반박

가능성, 확인가능성,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라 4개 언어 범주(행위동사, 해석동사, 상태동사, 형용사)로 구분이 가능한 지 검토한 결과 성공적으로 구분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에 따라 대상의 행위가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가에 따라 언어적 추상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대상의 행위가 대상의 고향 지역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는 경우 더욱 추상화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3에서 반복되었는데, 고향을 말씨로 조작한 뒤,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을 때 언어적 추상화 점수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자의 기대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대상에 대하여 더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지각자의 기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보다 대상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전형적인 언어 기대 편파(LEB)를 경험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사회심리학의 지역 고정관념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언어'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 과거 지역 고정관념 연구는 주로 인지과정 즉, 기억, 재인 및 귀인과 같은 정보처리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정관념 처리 과정에 있어 언어적 표현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Semin과 Fiedler(1988, 1991)가 제안한 언어 범주화모델(LCM)이 한국어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지역 고정관념에 의한 기대가 언어적 추상화 현상으로 나타남을 밝힌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3의 행동의도(즉, 채용정도)평가에서 기

대했던 바를 일부 지지하였는데, 서울 사람 지역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지적인 행위를 한 경우 충청사람이 그러한 경우보다 더욱 채용의도가 높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인정 많은 행위를 한 대상이 충청사람일 때보다 서울 사람일 때 더욱 채용하겠다고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수험생의 고향이 서울인 경우 수험생이 지적인 행위를 한 경우나 인정 많은 행위를 한 경우에 상관없이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충청 지역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데, 채용 상황에서 고향이 충청 지역 일 때 서울인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혹은 이 결과는 충청 지역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채용상황에 있어 지방사람 일반에 대한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 3에서는 지역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대상의 행동을 해석하고(즉, 귀인) 이에 따른 실제 행동의도(즉, 채용정도)가 나타나는데 있어 언어적 과정(즉, 언어적 추상화)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모형을 검토했지만 기대했던 언어적 과정(추상화)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이는 실험과정에서 언어적 추상화를 측정하는 과정이 매우 암묵적(implicit)이었고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과정은 매우 명시적(explicit)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은 실험자극에 노출 된 뒤, 자신이 느낀 바에 따라 수험생을 묘사하는 과제으로써 언어적 추상화를 측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참여자도 자신의 태도가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언어적 추상화 측정은 매우 암묵적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Maass(1999)는 언어 내집단 편파(LIB)나 언어 기대 편파(LEB)가 매우 암묵적인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그는 Modern Racism Scale과 같은 자기보고(self-report)식 평가의 경우 평가자 스스로가 자신의 반응을 억제 가능하지만, 언어적 추상화의 경우 평가자 스스로 반응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외의 여러 연구에서 언어 기대 편파(LIB)가 명시적 측정치와 상관 없이 암묵적 측정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Douglas & Sutton, 2006; Franco & Maass, 1996, 1999; Semin & de Poot, 1997a, 1997b; Von Hippel, Sekaquaptewa, & Vargas, 1997).

또한 본 연구 3의 행동의도(즉, 채용의도) 측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이 수험생

을 채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는 직접적으로(명시적으로) 참여자들의 태도와 의도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기-제시(self-presentation) 전략에 따라 실제 자신의 태도를 숨기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두 측정 과정의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언어적 추상화 현상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채용 의도에 대한 간접적 측정방식을 사용(즉, ‘이 사람의 상사가 이 사람을 부하로써 얼마나 좋게 평가할지’ 혹은 ‘부하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상사로 좋아할지’ 등을 질문함)하거나 암묵적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연구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 내집단 편파(LIB)를 측정하지 못했다. 즉, 본인이나 부모의 고향에 따른 언어적 추상화를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는 서울 출신 참여자 선정은 순조로웠으나, 충청 지역 출신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각 지역출신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내집단 편애현상(즉, 언어 내집단 편파)이 언어로써 실제로 나타나는 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한 언어 전략이 고정관념 완화에 효과를 주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즉, 우리가 성이나 인종, 지역 등의 고정관념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 목표(goal)에 따라 고정관념이 완화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과거 서구에서는 언어적 추상화를 다룬 몇 가지 연구들이 의사소통 목표(goal)를 조작하여 고정관념이 수정되고 완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Douglas와 Sutton(2003)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목표(goal)에 따라 언어적 추상화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즉 이들은, 전략적 의사소통 목표(goal)가 제시되면, 의사소통 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기대(즉, 고정관념)와는 독립적으로 언어적 추상화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참여자들을 기대 일치 혹은 불일치 조건으로 구분한 뒤, 기대일치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특정 행위가 묘사된 장면을 보여주고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 행동을 자주 한다고 상상하도록 지시하여 기대를 조작하였다. 반대로 기대불일치 조건에서는 특정 행위가 묘사된 장면을 보여주고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각각의 조건에 긍정적 행동(쓰레기를 줍는

행동, 노인이 길을 잘 내려가게 돕는 장면 등)이 묘사된 그림과 부정적 행동(쓰레기 버리기, 다른 사람 때리기 등)이 묘사된 그림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목표를 설정하여 각 조건의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본 그림을 최대한 긍정적(호의적) 혹은 부정적(비 호의적)으로 묘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목표가 대상을 긍정적(호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인 경우, 기대와 일치하는 긍정적 행위 조건보다 기대와 불일치하는 긍정적 행위 조건에서 참여자들은 그림의 주인공을 보다 추상적으로 묘사했다. 반대로 의사소통 목표가 대상을 부정적(비 호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인 경우, 기대와 일치하는 부정적 행위 조건보다 기대와 불일치하는 부정적 행위 조건의 참여자들이 보다 그림의 주인공을 추상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정한 의사소통 목표(goal)가 주어지면 의사소통자의 기대와는 독립적으로 언어적 추상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소통 목표가 기존에 의사소통 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대립하는 경우 언어 기대 편파가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Douglas와 Sutton(2003)은 언어적 추상화가 인간의 신념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언어표현의 목표나 동기에 따라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 내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성, 인종, 지역에 따른 고정관념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정관념 완화를 위한 언어적 전략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의 행위가 고정관념과 일치할 때 그 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고정관념과 불일치할 때 일반적·추상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거나 혹은 둘을 병행하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 고정관념적 사고와 판단이 완화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만흠 (1987). 한국사회지역갈등연구. 현대사회연구소.
 김범준 (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1-18.
 김진국 (1987). 영, 호남 대학생의 상호적 차이 지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5, 113-148.

김혜숙 (1988). 지역 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세대 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37-62). 서울: 성원사.
 김혜숙 (1993). 지역 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53-70.
 민경환 (1988). 집단 간 갈등 - 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91-121). 서울: 성원사.
 이진숙 (1959). 8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74-87.
 정호성 (2001).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 형용사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심리학회 편 (1988).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홍재성 외 (2001).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Brown, R. (1983). *Linguistic rela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G stanley Hall Centennial Conference, October 12-13, Baltimore, MD.
 Brown, R., & Fish, D. (1983). The psychological causality implicit in language. *Cognition*, 14, 233-274.
 Douglas K. M., & Sutton, R. M. (2003). Effects of communication goal and expectancies on language abs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82-696.
 Douglas K. M., & Sutton, R. M. (2006). When what you say about others say something about you: Language abstraction and inferences about describers' attitudes and go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500-508.
 Franco, F. M., & Maass, A. (1996). Implicit versus explicit strategies of out-group discrimination: The role of intentional control in biased language use and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5, 335-359.
 Franco, F. M., & Maass, A. (1999). Intentional control over prejudice: When the choice of the measure matt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29, 469-477.
- Maass, A. (1999). Linguistic intergroup bias : Stereotype perpetuation through languag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1, pp.79-121).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Maass, A., Milesi, A., Zabbini, S., & Stahlberg, D. (1995). Linguistic intergroup bias : Differential experiences or in-group prot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6-126.
- Maass, A., Salvi, D., Arcuri, L., & Semin G, R. (1989). Language use in intergroup contexts : The linguistic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981-993.
- Semin G. R. (2007). Linguistic markers of social distance and proximity, In Fiedler, K.(Ed.), *Social communication*(pp.389-407). New York : Psychology Press.
- Semin G, R., & de Poot, C. J. (1997a), The question-answer paradigm : You might regret not noticing how a question is wor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72-480.
- Semin G, R., & de Poot, C. J. (1997b), Bringing partially to light : Question wording and choices as indicators of bias. *Social Cognition*, 15, 91-106.
- Semin G, R., & Fiedler, K. (1988). The cognitive function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describing persons : Social cognition and langu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58-568.
- Semin G, R., & Fiedler, K. (1991). Linguistic category model, its bases, applications and rang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 1-30.
- Semin G, R., & Greenslade, L. (1985). Differential contribution of linguistic factors to memory-based ratings : Systematizing the systematic distor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713-1723.
- Semin, G, R., Montes, L, G., Valencia J, F., Higgins, T., & Estourget Y. (2005). Linguistic signatures of regulatory focus : How abstraction fits promotion more than prev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9-45.
- Stapel D. A., & Semin G. R. (2007). The magic spell of langu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23-33.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hip*(pp.33-47). Monterey, Cali Brooks/cole.
- Von Hippel, W., Sekaquaptewa, D., & Vargas, P. (1997). The linguistic intergroup bias as an implicit indicator of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490-509.
- Wigboldous D, H, J., Semin G, R., & Spears R. (2000). How do we communicate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5-18.

Where are you from? The Effect of Regional Stereotypes on the Linguistic Expectancy Bias : Focusing on the Linguistic Category Model

Sang Hui Park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ree studies examined that the effects of regional stereotypes on the linguistic expectancy bias based on the postulates of the Linguistic Category Model (LCM). More specifically, we examined in Study 1 whether Korean words could be separated into four language categories in terms of the level of abstraction. The results of Study 1 demonstrated that Korean words were successfully separated into four languag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five criteria (concreteness vs abstractness dimensions) postulated by LCM. In Study 2, we presented a script which described the target person in a job interview situation, revealing the target's hometown region and behaviors which were either consistent or inconsistent with the regional stereotypes. We then asked the participants to recall and write down the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erson and analyzed these descriptions in terms of the four categories identified in Study 1.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as expected, the target was described with more abstract terms rather than concrete terms when the target's behavior type was consistent with the regional stereotype. Study 3 attempted to replicate Study 2 with a more real-life like manipulation of the target's hometown region and the behaviors, by presenting a video tape in which the target responded to the questions of the interviewers in a job interview situation, instead of a written script. The results of Study 3 replicated the results of Experiment 2 : the target was described with much more abstract terms than concrete terms when the target's behavior type was consistent with the regional stereotype. The results of Study 3 also demonstrated that the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o internally attribute the stereotype-consistent behaviors than inconsistent ones, as well as to intend to employ the target in the former case than in the latter case. However, unlike the hypothesis, the behavioral intention of employment turned out not to be mediated by the language abstraction.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Keyword: linguistic category model; linguistic expectancy bias; language abstraction; regional stereotype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3월 16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5월 9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13일

부록 1. 연구 1에 쓰인 단어들

행위동사(DAV)	해석동사(IAV)	상태동사(SV)	형용사(ADJ)
철수가 방에서 잔다.	철수가 시험을 준비한다.	진호가 철수를 싫어한다.	영희가 매우 지혜롭다.
민호가 길을 걷는다.	영호가 문제를 설명한다.	영수가 미희를 사랑한다.	철수가 참 부지런하다.
수진이가 공을 던진다.	영수가 모임에 참여한다.	수진이가 영수를 좋아한다.	민호가 정말 게으르다.
영희가 가방을 들고 있다.	기호가 신제품을 개발한다.	영주가 선생님을 존경한다.	영희가 매우 유능하다.
철수가 외투를 벗었다.	미희가 영어를 공부한다.	민호가 번개소리에 놀란다.	철호가 정말 유명하다.
지혜가 이빨을 뽑았다.	민호가 친구를 돕는다.	소희가 잘못을 후회한다.	진호가 참 명청하다.
영수가 담배를 핀다.	철수가 서랍을 정리한다.	철수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소희가 매우 검소하다.
소희가 시계를 본다.	진호가 창문을 고친다.	철호가 시험을 두려워한다.	영수가 참 자상하다.
지혜가 밥을 먹는다.	상호가 시장을 조사한다.	진수가 동생을 이해한다.	민호가 정말 용감하다.
진호가 라디오를 듣는다.	철수가 월급을 요구한다.	소희가 시험결과에 절망한다.	진호가 꽤 성실하다.
미희가 의자에 앉는다.	민호가 수업내용을 기록한다.	민호가 합격을 기뻐한다.	지수가 정말 교활하다.
철수가 수레를 민다.	진호가 입을 옷을 선택한다.	철수가 민호를 부러워한다.	영희가 참 쾌활하다.
민호가 음식을 담는다.	미희가 자신을 소개한다.	영희가 진수를 기억한다.	소희가 매우 정직하다.
미희가 창문을 가리킨다.	정수가 마음을 결정한다.	철수가 영주를 믿는다.	진호가 참 친절하다.
기호가 얼굴을 씻는다.	지혜가 진호에게 감사한다.	영수가 소희를 걱정한다.	주희가 정말 발랄하다.
영수가 침대에 눕는다.	철호가 수업을 진행한다.	철호가 축제를 즐긴다.	영수가 너무 건방지다.
영희가 접시를 깬다.	민호가 민희를 속인다.	민호가 합격을 원한다.	수진이가 매우 공격적이다.
진호가 밖에 서있다.	수진이가 화재를 경고한다.	경수가 주희를 의심한다.	영호가 정말 내성적이다.
기호가 차를 운전 한다.	영수가 물을 절약한다.	민수가 회재를 존중한다.	주희가 참 낙천적이다.
지수가 손을 흔든다.	미주가 돈을 저축한다.	가희가 철호를 동정한다.	희재가 참 상냥하다.